

모래상자치료 사례를 통해서 본 죽음의 의미

조미영¹⁾

The Meaning of Death in a Case of Santray Therapy Cases

Mi-Young Jo

요 약

본 연구는 죽음의 의미가 모래상자치료 사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심리학적 측면과 영웅신화 및 민속문화를 바탕으로 모래상자치료 사례를 살펴보았다. 모래상자치료 사례는 자아중심화 시기인 아동, 청소년과 전체정신의 자기로 향하는 시기인 중년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막연히 공포스러워하거나 아주 먼 미래에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삶 안에서 매일 같이 일어나고 있다. 예견하는 죽음부터 예측하지 못한 죽음 그리고 물리적 죽음과 상징적인 죽음까지 우리 주변에서 흔하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예부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죽음에 대해 알고 싶어했고 이 신비스러운 비밀을 풀고자 부단히 애를 써왔다. 의학은 물론이거니와 종교에서부터 철학, 신화 및 민속문화에 이르기까지 죽음에 대한 의미는 다양하게 펼쳐져 있다. 본 연구는 내담자들 내면에 담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의미들이 모래상자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 2사례, 청소년 1사례, 60대 성인 1사례를 분석하였다.

핵심어: 모래상자치료, 죽음, 자아중심화, 개성화, 재탄생.

Abstract

This study find out how the meaning of death appears in sandtray therapy cases, this study looked at sandtray therapy cases based on analytical psychological aspects and hero myths and folk culture. The cases of sandtray therapy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children, adolescents, and clients after middle age. which is a period of ego-centeredness periods, and middle-aged periods, which are periods toward self. All human beings are bound to experience death. However, many people are vaguely afraid of death or think it will come in the very distant future, but it actually happens every day in our lives. This is because, from predicted death to unexpected death, physical death and symbolic death, it occurs all the time around us. Since ancient times, many people have wanted to know about these deaths and have been striving to solve this mysterious secret. In addition to medicine, the meaning of death is diverse, from religion to philosophy,

1) 그레이트심리상담연구소 소장 E-mail: morae015@hanmail.net

mythology, and folk cul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the meanings of death contained in clients appear in the sandtray therapy cases and what the purpose is. To this end, 2 cases of children, 1 case of adolescents, and 1 case of an adult in their 60s were analyzed.

Key words: sandtray therapy, death, self-centeredness, Individuation, rebirth.

I. 서론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면 죽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일 것인데 인간의 욕심은 영원한 삶에 대한 애착으로 강렬하게 불타오르는 것 같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도 불로장생에 대한 꿈을 꾸며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많은 곳을 다녔다고 한다. 이렇듯 삶에 대한 강렬함이 더욱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하고 영원한 삶에 대한 집착으로 점철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싶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우리의 삶이 시작된 시점부터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를 그래프로 표현하자면 종모양의 포물선을 그린다고 한다. 인생은 우리가 시작했던 그 시점으로 반드시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강렬한 삶의 열망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삶의 여정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고착되어 말라비틀어진 나뭇잎이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것 같은 형상이 되어 버리는 것 같다. 요즘은 동안 외모를 선호하고 실제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것이 미덕인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렇다 보니 너도 나도 젊음을 추구하게 되고 나이들에 대한 인식이 어려워지는 시대가 아닌가 싶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온전한 자신에 대해 알아가기 어렵게 되고 신경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죽음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고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해 치열하게 가고 있는 것이라면 우린 그러한 죽음을 어떻게 온전히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순신 장군의 좌우명 중에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則生 必生則死)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다. 살고자 한다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한다면 산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대표되는 모순일 것이다. 인생은 모순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눈앞에 나타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에 속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모래상자치료에도 삶과 죽음에 대한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 아동들의 사례에서 흔하게 표현되는 것 중에는 소품을 모래 속에 묻었다 꺼내거나 일상에서 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죽음을 하나의 일과처럼 다루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아동들에게 죽음은 좀 더 익숙한 일상이 아닐까 싶다. 청소년의 사례에서는 직접적인 죽음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전쟁을 하거나 싸워서 죽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난다. 힘을 얻기 위해 강자가 약자를 죽이거나 죽음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장면을 표현함으로써 강자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부활로써 재탄생을 하며 새로운 인격으로 변모되는 내용이다. 성인의 사례에서는 개인이 경험한 죽음을 표현하거나 죽음에 대한 관념적 표현이 나타나기도 한다. 의미 있는 사람들의 죽음을 재조명 해보거나 사후에 대한 표현을 함으로

써 단순히 끝나는 죽음이 아닌 그 이후에 있을 무엇에 대해 알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내기도 한다. 성인의 사례에서는 그림자를 인식해야 할 때 고통이 수반되는데 이때 상징적인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림자 통합으로 인해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되기도 한다. 또한 자아는 중년기 이후에 중심화를 의식하게 되며 개성화과정을 통해 자기로 향하게 된다.

본 연구의 사례는 자아중심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인 아동, 청소년의 사례와 자아중심에서 전체 정신인 자기로 향하는 시기인 성인의 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자아중심화 시기에서 죽음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전체 정신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시기에서 죽음의 의미는 모래상자치료 사례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II. 분석심리학에서 죽음의 의미

인간은 전 생애를 통해 다양한 정체성을 거치게 된다. 우리는 약 7~10년마다 육체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거치는데 이러한 변화되는 삶 속에서 반복되는 죽음과 재생의 자율적 과정이 일어난다.

융분석가인 James Hollis(2018)에 의하면 인간은 삶의 4단계를 거치는 동안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그 첫 번째 단계에서 정체성은 유년기로 자아가 부모의 실재 세계에 의존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며 유년기에서 성인기로 가기 위해 통과의례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전통적인 통과의례는 부모로부터 격리, 죽음, 재생, 교습, 시련, 귀환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첫 번째 단계인 부모로부터 격리가 현재 서구문화에는 없기 때문에 성인이 될 때까지 의존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게된다. 격리된 개인은 의존적 유년기를 살해하며 새로이 탄생해야 한다. 새롭게 태어난 개인에게 원초적 신화를 전해주는 교습은 아쉽게도 신화라는 정신적 지주를 잃어버린 탓에 자연스러운 삶의 여정을 알아가기 어렵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신의 과제를 해결하며 깨닫는 시련의 과정에서 많은 현대인들은 신경증을 앓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정체성은 1차 성인기인 사춘기이다. 젊은 자아를 굳건하게 다져 부모로부터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생존을 위해 싸우는 동시에 원하는 것을 이뤄낼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기이다. 개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깊이와 개성이 부족한 잠정적 시기로 사람에 따라서는 생애 마지막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

세 번째 정체성은 2차 성인기로 개인의 투사가 사라졌을 때 시작된다. 1차 성인기에 죽음을 경험하고 삶에 더 큰 책임을 받아들인 자는 삶의 마지막 단계도 더 강한 의식을 가진 채 보낸다. 최초의 죽음을 회피한 사람은 그다음에 다가올 죽음에 사로잡혀, 의미 없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한다. 2차 성인기는 ‘잠정 정체성을 버리고 거짓된 자기를 죽이고 나서야’ 얻을 수 있다.

우린 전 생애를 거치며 삶의 굴곡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점에서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죽음과 재생이다. 죽음을 통해 다음 관문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네 번째 정체성은 유한성의 중심축으로 개인을 초월하는 우주의 신비로 구성된다. 따라서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비전을 넓히는 일이 중요하다. 스스로의 의지 없이 한 축에서 다른 축으로 옮겨간다면 혼란과 두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지만, 이 거대한 우주의 드라마 안에서 점점 커다란 역할을 맡아야만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융은 인생의 전반기와 후반기의 삶의 태도가 달라야 한다고 하였다. 인생의 전반부는 자아 중심화의 시기로 사춘기에서 정점에 이르는데, 중심화는 의식과 무의식 체제 간의 보상적 관계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중심화의 중심기관인 자아는 그 전체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후반부인 중년기에 이르러 인격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며, 이 시기에 자아가 중심화를 의식하게 된다. 동시에 개인의 전 인격화 과정과 정신적 전체성의 중심으로 자기의 배열에 이르게 된다. 이때 전체성의 중심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의식적으로도 경험된다(Neumann, 2010).

초기 아동기의 아동들은 집단무의식이 작용하는 상태로서 본능에 기초한다. 그러므로 생존을 위한 활동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모두 자아의식의 정립 및 분화를 하려는 목적이 있다. 후기 아동기는 자아가 힘을 갖게 되고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충동성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충동적이고 본능적으로 행동한다면 자아중심성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기는 자아중심적으로 활동을 펼치며 중심화는 의식과 무의식 체제 간의 보상적 관계로서 나타난다. 이 시기는 재탄생의 시기이며 용과의 싸움을 통해 영웅의 자기생산을 나타내는 상징의 시기에 해당한다. 이로써 무의식과의 유대는 지양된다.

성인은 자유 리비도를 가지고 있어서 견고하고 탄력 있는 자아의식이 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환경에 지배를 받거나 무의식의 영향에 무력하다면 중년기 위기를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년기는 인격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자아는 무의식에서 출발하여 인격의 전체를 사로잡는 다소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게 된다. 이 시기는 자기(Self)의 발달과 정신적 체제의 통합으로 이끌게 되는데 전반부에 일어났던 발달과 반대 방향으로 일어난다. 그러므로 전반부의 삶의 방식처럼 후반부를 살 수 없게 된다.

인격을 분화의 단계로 이끌던 길의 반대가 되면서 자아와 자기 간의 의식된 마음과 심혼 간의 화해에 이르는 것이다. 전반부 삶에서 일어났던 분화가 이제는 의식의 확장과 발달에 있어 새로운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게 된다. 이렇듯 인생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며 자아중심화에서 전체 정신으로 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무의식의 영역인 죽음을 경험할 때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이는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며 단지 거친 몸을 벗는 것일 뿐이라고 하며 예부터 신비가들은 죽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슬람의 신비가 루미는 “죽음은 감미로운 것이며 영원을 향한 여행”이라고 했다고 한다. 인간으로 죽은 다음에는 신과 하나 되는 것으로 믿었기에 죽음을 삶의 완성으로 보았다(최준식 2014).

죽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공포감을 갖고 있는데 실제 근사체험을 한 이들의 경험담을 들어 보면 죽음이 임박했을 때 오히려 평온함을 느낀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을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죽음이 닥쳐오는 순간에 몸에서 엔돌핀이 분비되어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다고 한다. 죽음의 끝에 맞보는 평온함은 죽음이 끔찍한 고통만이 아니고 안정되고 평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융에 따르면 인생은 정지상태의 목표를 향해 목표지향적이며 합목적성의 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인생의 목표지향성은 위로 올라가던 때와 같은 강렬함으로 아래로 내려간다 라고 하였다. 위로 올라갈 때 어려움이 내려올 때도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이며, 삶의 위를 향해 최선을 다했던 젊은 날의 노력만큼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서도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죽음은 단지 의미 없는 끝남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 충족이며 그 고유의 목표일 때 인류의 일반적인 심혼에 더 많이 일치한다. 이를 보여주는 예로 무의식적 심혼이 죽음에 관한 관대함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죽음이란 상대적으로 하찮은 것일지도 모른다.

인생의 종말은 정상적인 삶에서도 심리화학적 상태 변화를 시사할 만한 상징들로서 나타내고 있다. 즉, 장소변화, 여행 등과 같은 재탄생의 상징들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고 많은 종교에서 보여주듯이 인격의 완성이며, 그 과정은 다양한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다. 신화와 민담, 원시인의 성인식, 샤먼의 입무의례, 종교적인 제의 그리고 현대인의 꿈에서 죽음과 재생의 주제가 반복해서 나타난다. 이들의 핵심적인 요소는 언제나 똑같다. 즉, 주인공의 상징적인 죽음과 부활이다. 중년 이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꿈을 많이 꾸는데 이는 상징적으로 이해된다. 그런 꿈은 대개 자아가 인생에 대해 지나치게 젊은 태도를 취할 때 나타나서 꿈꾼 이에게 자기성찰을 통한 인격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한다고 하였다(C.G Jung 2004).

III. 영웅신화에 나타나는 죽음의 의미

영웅이란 스스로의 힘으로 복종(자기 극복)의 기술을 완성한 인간이다. 또한 영웅은 과거 개인적, 지방의 역사적 제약과 싸워 이것을 보편적으로 타당하고 정상의 인간적인 형태로 환원시킬 수 있었던 남자나 여자를 일컫는다. 그런 사람의 상상력과 이상과 영감은 태고적부터 인간의 생명과 사상의 원천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영웅은, 현재의 붕괴되어 가는 사회나 정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회 재생의 심원한 원리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한다. 영웅은 현대인으로 죽었지만 영원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따라서 두 번째 엄숙한 과업과 행위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재생의 삶에 대해 그가 배운 바를 가르쳐주는 것이다(J. Cambell 2017).

인간이 출생에서부터 성장, 소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맞게 되는 다양한 경험, 시련, 만남, 회로애락 등을 반영한 영웅신화의 구조는 개인의 자아의식 발달 과정에서 그 개인의 특수한 지점에 적용되고 동시에 개인이 직면한 특수한 문제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영웅상은 인간의 개성이 발전해가는 각 단계를 반영하듯 전개된다.

신화 속 영웅은 모험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 길로 뛰어들어 무사히 보상을 안고 귀환하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 영웅은 모험의 길을 떠나 초자연적인 특별한 세계에 들어서서 겪게 되는 시련을 통해 또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영웅은 과거의 나약함이 죽고 강인한 인격으로 부활하게 된다.

무속 신화이면서 영웅신화인 <바리공주> 이야기는 영웅의 여정을 잘 보여주는 신화로서 버려진 아기라는 뜻으로 ‘바리데기’라고도 한다.

이름 그대로 부모에게 버려지게 되는 바리공주 이야기는 양부모에게 키워졌지만 병든 아버지를 위해 저승에 가서 불사약을 구해 오는 과정이 그려진다. 버려졌다는 것은 이미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바리공주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불사약을 얻으러 저승으로 향한다. 죽음을 불사한 영웅은 저승으로 가서 현실 세계로 무엇인가를 가져오게 되는 여정을 겪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영웅은 여러 차례의 관문을 통과하게 된다. 바리공주 이야기에서도 고초를 겪으며 다양한 관문을 통과해서 불사약을 구해 현실로 변모되어 돌아오는 내용이 있다. 이렇듯 영웅신화는 죽은 자의 재생이라는 신화소를 포함하고 있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난관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IV. 민속문화에서 죽음의 의미

4.1. 진도 다시래기

진도 다시래기는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전해오는 장례식에서 하는 연극으로 축제식 장례, 광대의 등장, 성적 표현들, 여성의 적극적 참여, 출산 과정의 난관, 아이의 탄생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다.

비탄의 슬픔과 희극과 웃음이 공존하며 그림자적 요소를 가진 등장인물과 열등기능인 병신춤은 무의식적 요소의 활성화로 전체가 됨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 출산은 새로운 탄생, 갱신을 의미한다.

다시래기의 전제조건은 호상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것은 삶의 여정에서 갖추어진 삶을 산 다음에 제대로 된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다.

다시래기는 죽은 자를 위한 것이기 보다 오히려 산자를 위로하기 위한 성격이 더 강한 놀이이다. 죽음이 상실이 아니라 새로 태어남이요, 살아남은 자에게는 새로운 독립된 지도자로의 변환을 뜻한다. 죽은 자와 산 자 모두에게 갱신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다시래기에서는 극심한 비탄의 슬픔과 다른 한쪽에서는 희극과 웃음이 공존한다. 그림자적 요소를 가진 여러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또 열등기능인 병신춤으로 무의식적 요소들의 활성화를 통해 전체가 되는 경험을 한다. 다시래기 과정에서 아이의 출산은 죽음을 통한 새로운 탄생을 그것도 죽은 자는 저승에서 산자는 새로운 지도자로서 이중의 탄생, 즉 갱신을 의미한다. 상자로 대변되는 자아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그림자와 열등한 기능들을 의식화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개성화 과정의 과제를 부여받는다. 전체가 되려면 그리고 창조적인 무한한 가능성과 전체성의 상징인 아이를 낳으려면 난산의 고통을 견뎌야 하고 판단의 눈을 감은 장님의 독경이 필요하다. 그보다 먼저 오랜 기간 잘 살아온 기존 질서의 죽음이, 즉 심리학적 의미의 호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래기는 말해 주고 있다. 전제되는 호상은 제대로 된 삶을 의미하고 이것은 외적인격으로서 페르조나의 형성과 구분을 요구한다.

다시래기의 과정은 죽음이 상실이 아니라 새로 태어남이며 살아남은 자에게는 독립된 지도자로서의 새로운 변환을 가져다준다. 상가에서 아버지의 죽음은 상자가 비로소 그 집안의 장자로서의 지

도자적 위치를 차지한다. 이 과정이 상례를 치르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겪는 성인식으로 비유될 수도 있다. 죽은 자와 산 자 모두의 갱신(更新)이라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박상학 2011).

현재 대부분의 상장례가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면 진도 다시래기는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어 죽음은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이 되어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다.

4.2. 멕시코 죽은 자들의 날

멕시코 죽은 자들의 날(Día de los Muertos)은 해마다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멕시코 전역의 공원과 건물, 가정에 제단을 차리고 죽은 이들을 기리는 명절이다. 죽음의 가치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멕시코인들은 세상을 떠난 이들이 1년에 한 번 가족과 벗을 만나러 세상에 내려온다고 믿으며, 10월 말일에 제단을 마련한 후 11월 1일에는 죽은 아이들을, 11월 2일에는 죽은 어른들을 위해 기도를 올린다.

죽은 자들의 날에 벌이는 행사는 아스텍인들이 사후 세계를 관장하는 죽음의 여신 므텍카시우아틀(Mictecacihuatl)에게 바치던 제의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러한 전통은 약 3천 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 에스파냐 정복자들이 죽음을 완전한 끝이라고 본 것과 달리, 아스텍 원주민들은 삶이 꿈에 지나지 않으며 죽음을 통해 진정으로 깨어난다고 믿었다. 이에 따라 해마다 죽은 자들의 날을 맞아 므텍카시우아틀에게 제사를 올리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했다. 죽은 사람들은 사망한 이유, 성별, 생전의 직업 등에 따라 분류됐고, 이 분류에 따라 기념하는 날이 정해졌다.

봉헌물로 해골 가면인 칼라카를 쓰는데 칼라카는 죽은 자들의 날에 가장 많이 쓰이지만 1년 내내 흔히 볼 수 있는 상징물이기도 하다. 마리골드와 나뭇잎을 들고 있는 칼라카는 고대 아스텍 시대부터 슬픔보다는 즐거움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전해 내려온다. 화려한 축제 의상을 입고 춤을 추거나 음악을 연주하는 칼라카의 모습은 사후의 삶을 즐긴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죽음이 곧 해방’이라는 아스텍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멕시코 사람들은 누군가 죽으면 ‘칼라카가 데려갔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멕시코인들은 죽음을 부정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꽃과 촛불로 장식하고 죽은 이가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을 나눠 먹거나 음악을 들으며 즐겁게 보낸다고 한다. 멕시코의 시인인 옥타비오 파스(Octavio Paz)는 ‘멕시코인들에게 죽음은 가장 좋아하는 놀이이며 영원한 사랑’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이는 삶보다 죽음을 더 값지게 여기며, 삶이 아닌 죽음을 통해 진정으로 깨어난다고 믿는 아스텍인들의 마음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V. 모래상자치료 사례에 나타나는 죽음의 의미

1. H 10세 여아 1남 2녀 중 둘째이며 1형 당뇨를 앓고 있다. 7세에 발병하여 하루에 7~8차례 인슐린 주사를 투여받고 있다.



[그림1] 환경을 파괴하지 말자



[그림2] 환경을 파괴하지 말자(재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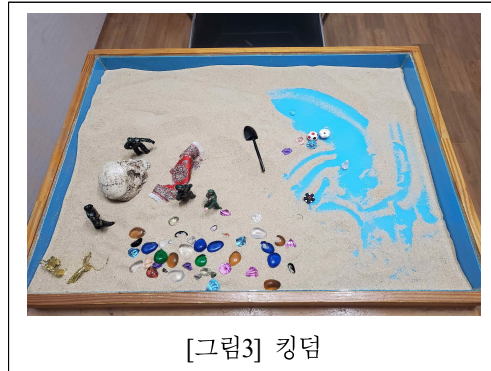
젖은 상자에서 아래쪽에 모래언덕을 만들고 성을 놓는다. 안나, 엘사를 가져온다. 안나는 엘사의 노예라고 하며 엘사가 안나에게 일을 시킨다고 한다. 안나는 엘사가 시켜서 씨앗을 심고 보라색 꽃이 폼지만 엘사가 파헤쳐 버리고 다른 꽃을 심으라고 한다. 다른 꽃을 줬다가 맘에 들지 않은지 성을 치워버리며 안나가 더 이상 엘사의 횡포에 화를 참지 못하고 성을 치워버리고 모두 꽃집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한다. 그리고는 안나가 엘사를 삽으로 퍼서 모래 속에 묻으며 말하는 꽃을 심을거야 라고 한다. 그러자 엘사가 오른쪽 위에 무덤을 만들고 저주를 걸면서 주문을 외운다. 안나의 무덤이 될거라고 한다. 비석에는 '숨을 쉬다가 죽음'이라고 써여있다고 한다. 비석 옆에는 금화가 담긴 보석함을 놓는다. 꽃들이 주인공한테 이야기는 환경을 파괴하지 말자라는 내용이에요. 주인공은 앞으로 엘사를 괴롭혀요. 안나는 잘 가졌지만 엘사는 환경을 파괴해서 그래요

제목: 환경을 파괴하지 말자

아동은 모래상자에 안나와 엘사를 등장시키고 그들의 관계 속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언니의 횡포를 참기 힘든 안나가 엘사를 모래 속에 묻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엘사는 안나에게 저주를 걸고 죽여 안나의 무덤을 만든다. 안나는 말하는 꽃을 만들겠다고 엘사를 물어버린다. 그러나 엘사는 안나와는 다르게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죽음의 의미로서 '무덤'을 만든다. 엘사는 말하는 꽃이 되었고 꽃들이 괴롭힐 거라고 한다. 환경을 파괴하는 엘사가 꽃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 장면에서 아동은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안나와 같은 모습이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엘사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첫 회기에서 모래상자를 꾸미면서 선택한 소품들을 가져올 때 모래 속에 묻었다 꺼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것 또한 새롭게 태어나고자 하는 아동의 무의식적 제의일 수 있을 것 같다.

2. C 13세 남아 외동으로 엄마의 우울로 태내기와 신생아기에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이후 성장하면서 게임 과몰입과 주의력결핍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래 관계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그림3] 킹덤

옛날 신라시대의 왕의 무덤을 현재 발굴하고 있어요. 이 왕은 착했고 노예제도를 없앴어요. 어렸을 때 노비들이 양반들에게 맞고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몸이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파서 왕이 되어서 노예제도를 없애게 되요.

왕의 무덤에서 보석이 나와요. 보석은 사실은 사리예요. 이 왕의 특별함은 뼈가 보석이에요. 노비를 없애니까 노비를 부리던 신하들이 불편해하다가 결국 왕을 암살하게 되요. 암살은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나요. 박 대통령은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지만 경제를 일으킨 사람이기도 해요. 용은 왕이 좋아했던 보석이에요. 검은 해골을 카페트에 싸서 모래속에 묻으며 왕이 죽으면 같이 묻혔던 노비예요. 산 채로 묻히니까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제목:킹덤

왕의 죽음에 대해 표현하였다. 평소 아동은 권력과 지위에 대한 갈망을 모래상자에 자주 표현해 왔는데 이번 회기에서는 최고 권력자의 죽음에 대해 표현하고 있다. 백성들과 노비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한 왕이 반대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 왕을 통해 박정희대통령을 떠올렸고 이 연상작업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같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아동은 권력에 대해 막연히 동경했던 과거의 태도에서 부정적 측면을 같이 느껴보는 계기가 되면서 죽음을 통해 정서적 분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P 16세 중학교 남학생 또래 관계 어려움을 보이고 있고 부모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강한 상태이다.



[그림4] 다이브

탐 위에서 놀고 있는데 밑에 보석함에 돈이 있어요. 위에 기린은 심심해요. 심심한 것은 집에 있는 것 기린은 높은 곳에서 놀고 있는데 아래로 내려오면 편안해져요. 위에 있으면 다 보여요. 색다르게 느껴져요. 무지개

는 트램폴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높이 올라가려고 더 뛰었던 것 같아요.

주인공은 기린인데 앞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것 같아요. 꽃은 떨어질 때 받쳐주는 것이고 주사위는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 같은거예요. 숫자가 모두 3인이유는 직선이어서

제목: 다이버

높은 곳에서 놀고 있는 기린이 아래로 내려오면 편안해지지만 위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보여서 내려오는 것이 망설여지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 있는 기린은 집에서 평범하게 있는 것 같다. 무지개는 트램폴린으로 높이 올라가기 위해 더 아래를 향해 강하게 내려가야함을 나타내고 있다. 무지개는 바리공주가 불사약을 얻으러 저승을 갈 때 건너갔던 것으로 저승으로의 길을 안내하는 상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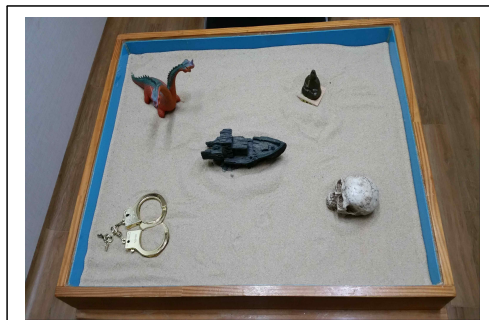
주사위 숫자 3은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융에 의하면“3은 2가 나뉘면서 생기는 손상을 회복시킨다”라고 하였다. 3은 자기충족을 가능하게 하는 합(합)을 통해 전체성을 알린다.

의도적으로 유도된 수 3의 힘을 지닌 개인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힘을 끌어낸다.

3의 전체성 안에는 역동성이 포함되어 있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와 처음, 중간, 끝의 세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곳에는 방향적인 요소가 있다. 이러한 3의 역동적이고 직선적인 에너지는 종교, 신화, 동화에서 모험과 흥미를 일으키는 데 널리 이용된다. 이것은 양극성의 한계를 초월하고 역동과 무제한을 알아차리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P.S. Eastwood 2006).

내담자의 모래상자 사례에서는 무의식적 방향이 표현되었고 이것은 통합을 위한 발걸음이고 나아가 아래로 내려가 죽음을 경험하면서 역동적인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 진다. 또한 무지개의 다채로운 색채는 멕시코 장례문화인 죽은 자들의 날에 화려하게 장식하는 풍습을 떠오르게 한다.

4. K 62세 주부 암투병으로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고 남편의 무능함에 대한 분노가 많다.



[그림5] 무제

1) 1회기

난파선은 깊은 무의식을 탐색하고 잘 볼 수 있을지 계속 생각한다. 히드라는 의식과 무의식을 상징하며 서로 생각을 좁혀 하나로 만드는 걸 원한다. 수갑은 현실세계의 집착을 내려두고 마음을 편하게 하며 삶이 마무리 되는 순간을 보게 되는 것 같고 학자는 지금 여기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가장 나다운 삶을 살다가 좋은 봄날 내가 세상에 왔던 그날 새로운 여행을 떠나고 싶다

히드라는 머리가 여러 개인 뱀으로 머리를 잘라내도 다시 자라나며 불사의 머리이다. 맹독을 갖고 있어 신조차 두려워했고 인간이 맞으면 죽음으로써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지만 신이 맞으면 죽지도 못하는 채로 영원히 고통에 허덕여야 한다. 그러므로 죽음으로써 해방될 수 있는 고통을 의미하기도 한다. 내담자의 고통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사라질 것으로 보여진다.

스가와라 미치자네(오른위)는 명석하고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강직하고 융통성이 부족해 주위 사람들과 충돌이 잦았다고 한다. 학문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데 그는 살아생전 이렇다 할 업적을 쌓지는 않았지만 사후 재앙의 원령으로 여겨지며 천신으로 모시게 되면서 현재까지 학문의 신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 소품은 현재 내담자의 고집스럽고 융통성없는 특성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가운데 깊은 해저에 있었던 난파선을 놓음으로써 깊은 무의식 탐색에 대한 욕구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아직도 통합하지 못해 갈등하며 죽음으로써 끝나야 함을 히드라로 나타내었고 수압으로 대변되는 집착과 스가와라 미치자네의 융통성이 부족한 모습은 내담자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보여진다.



[그림6] 무제

2) 2회기

주전자는 따뜻한 물과 시원한 물을 채울 수 있고 나눔을 할 수 있다. 카메라를 통해 옛날을 기록한 것은 현재 사용하고 지금 기록한 것은 미래의 나에게 성공으로 가져다 준다. 못난이 삼형제는 어린 시절 나의 모습 같다. 다리와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고 행복하게 살다가 다음 생으로 넘어갈 때 웃고 넘어가고 싶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를 꾸준히 공부하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면서 나누는 삶으로 마무리하고 싶다.

주전자에 따뜻한 물과 시원한 물을 채울 수 있다고 하였는데 다른 곳에서 따뜻한 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따뜻할 수도 시원할 수 있다는 것을 내담자는 알아차려야 할 것 같다. 결국 내 안에서 두 가지가 가능해질 수 있음을 안다면 밖에서 찾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담자는 카메라를 통해 과거 현재, 미래를 조망하고 있는데 시간을 직선적 의미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시간은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순환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VI. 결론

본 연구에서는 죽음의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아동기와 청소년기, 그리고 중년기 이후의 시기에서 죽음의 의미가 모래상자치료 사례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 살펴보려고 하였다.

분석심리학적 측면에서 죽음은 물리적인 삶의 중단이 아닌 삶의 일방향적인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 다시금 새로워지기 위한 통과의례로서 어쩌면 통합을 위해 반드시 치뤄야 할 삶의 과정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자살은 곧 영적인 재생을 향한 동경이라는 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충분히 의식할 수 있고 상징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면 자살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영웅신화에서의 영웅은 초자연적 부름에 응하여 특별한 세계로 입문 하면서 겪게되는 시련과 난관을 통해 과거의 나약함은 죽고 초월적 존재로서 새롭게 태어난다. 이렇게 모든 종교나 철학, 심리학에서 죽음은 낡은 자아가 죽고 새롭게 변모된 모습으로 재탄생하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민속문화에서는 죽음에 대해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보려고 진도 지방에서 행해지는 상장례 의식 중에 하나인 다시래기와 멕시코의 민속문화인 죽은자들의 날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시래기 장면에서 죽음은 마치 결혼식과 같은 분위기이며 죽음과 삶이 공존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멕시코인들이 죽은자들의 날을 통해 죽은자와 산자를 연결하고자 하는 풍습은 죽음을 통해서만 삶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두 나라의 민속문화에서 모두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며 곧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관점으로 모래상자치료사례에 드러난 죽음의 의미에 대해 아동, 청소년, 성인의 사례를 살펴보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자아중심화를 이루는 아동, 청소년시기와 전체정신으로 향하는 중년기 이후 시기에 나타나는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초등 여학생의 사례에서는 첫 회기 사례로 시작부터 선택한 모든 소품들을 모래속에 묻었다 꺼내서 사용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소품들이 마치 새 생명을 얻어서 태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아동은 1형 당뇨를 앓고 있어 평소에도 엄마에게 죽어서 다시 아프지 않은 상태로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 열망이 모래상자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야기로는 안나와 엘사의 죽고 죽이는 장면을 표현했는데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불편하다는 모의 보고를 통해 또래 관계에서 시기 질투 감정을 죽음이라는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 내담 아동은 모래상자에서 본능적인 죽고 죽이는 놀이를 통해 정신적 활력을 얻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안나와 엘사의 죽음은 자아발달적 측면에서 자아분화로 보여진다.

초등 남학생 사례에서는 권력과 지위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던 내담자가 죽음이라는 주제의 모래상자를 표현하였고 연상작업을 통해 권력과 지위의 양면적 측면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아동은 모래상자에 힘에 대한 동경심을 다양한 주제로 표현하며 많은 시간 내면의 문제들을 드러냈다. 후기 아동기에는 자아가 힘을 갖게 되면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는데 충동성과 주의력결핍의 문제들을 갖고 있던 아동은 이후에 충동성 조절이 가능해졌고 학교에서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들었다고 한다. 아동의 모래상자에서 원형적인 정서가 연상작업을 통해 의식화

되면서 정서 분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후기 아동기의 모래상자에서 죽음은 자아의식의 강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남학생 사례에서는 의식의 맨 꼭대기에서 내려오기 망설이는 모습과 반대로 아래로 더 내려가기 위한 트램폴린을 이용하는 모습이 대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로는 죽음이라는 의미의 아래가 될 것이며 위로 올라가기 위해 아래를 선택하는 모습이 보여진다. 사춘기는 자아중심적으로 활동을 펼치는 시기이며 이 시기는 자아가 보호장치를 깨고 나오는 영웅적 탄생의 시기이면서 정신적 탄생의 시기이다. 영웅은 과거의 나약함을 죽음으로 끝내고 강인한 인격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자이다. 내담자는 죽음을 불사한 아래 방향으로 진입을 앞두고 있다. 평범한 삶에서 특별한 세계로의 입문은 곧 죽음이며 내담자의 어린 자아는 이제 새로운 자기주장을 펼칠 수 있는 확장된 자아로써의 영웅으로 탈바꿈되어 진다. 내담자는 이제 남성적 의식이 강화되어 부모라는 틀에서 벗어나려는 것으로 보인다.

성인의 사례에서는 암투병으로 위기를 겪었던 내담자가 집착을 내려놓고 삶을 관조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표현하였지만 내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뤄질 수 있음을 믿지 못하고 아직은 세상 밖에서 찾으려는 태도와 직선적 시간의 개념으로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어쩌면 모래상자에 나타난 죽음은 관념적 표현일 수 있을 것 같다.

중년기 이후에 자아는 중심화를 의식하게 되면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보다 견고하고 탄력적인 자아로서 자기에 배열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내담자는 아직 외부적 조건에 영향을 받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아동의 사례에서 죽음은 자아 분화와 자아의식이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표현되었고 청소년의 사례에서는 확장된 자아로써 영웅의 탄생을 위한 죽음으로 표현되어졌다. 성인의 사례에서는 실제로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음에도 아직은 집착으로 인한 관념적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례에서 표현한 것과 같이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것으로 보아 인생의 오후를 살고 있는 내담자는 앞으로 근시안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거시적 안목을 갖출 수 있는 마음의 수련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죽은 자들의 날 [Day of the Dead] (세계의 축제 · 기념일 백과, 류정아, 오애리, 김홍희)

박상학(2011). 진도 다시래기의 상징적 의미<심성연구>,26(2) 149-188.
UCI:I410-ECN-0102-2014-100-001637554

이도희(2007). 자살의 이해와 대책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심성연구>,22(1)
UCI:41-47.I410-ECN-0102-2009-180-000266889

최준식(2014). 『너무 늦기 전에 들어야 할 죽음학 강의』 . 김영사, 경기 파주. 17-21.

C.G. 융 기본저작집9(2004). 『인간과 문화』 . 숲, 서울. 94-103.

Erich Neumann 저 이유경 역(2010). 『의식의 기원사』 . 분석심리학연구소, 서울, 421-431.

James Hollis 저 김현철 역(2018).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마흔이 되었다』 . 길벗, 서울. 48-55.

Joseph Cambell 저 이윤기 역(2017).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 민음사, 서울. 33.

Pratibba S. Eastwood 저 정정순외 공역(2006). 『모래놀이치료와 數상징』 . 학지사, 서울.

원고접수: 2024.07.20.

수정 본 접수: 2024.08.15.

게재승인: 2024.08.31